

기아차 광주공장 내년 40만대 생산

올 '초일류공장 도약 원년의 해' 선언 노사 협력 2년 연속 적자 탈피 최선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올해를 '초일류공장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2009년 연간 40만대 생산을 위한 준비작업에 나선다.

이에 따라 광주공장 노사는 올 사업계획의 키워드를 '위기의 우리 일터 희망의 모습으로 고객감동을 향해 새롭게 디자인! 디자인하자!'로 선정, 4대 추진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조남일 광주공장장은 연초 시무식을 통해 "지난해는 34만대를 양산해

광주공장 사상 최대의 생산실적을 기록했으나 해를 넘기고도 내수와 수출 모두 고유가와 환율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며 "신차 AM양산 등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사업계획 달성을 위해 매진한다면 올해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개 추진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광주공장 노사의 다짐은 어느 해보다 굳건하다.

노사가 오는 9월부터 양산예정인

신차 AM에 거는 기대는 적지 않다. AM은 SUV(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스타일에 미니밴과 세단의 승차감을 접목시킨 신개념의 SUV(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량)다.

기아차 관계자는 "AM은 올초 출시된 대형 SUV '모하비'와 더불어 레저 차량의 명가를 일궈낸 기아의 전통을 이어갈 것"이라며 "AM 생산라인이 제대로 구축돼야 연간 40만대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공장은 또 고객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92%에 그쳤던 생산합격률을 95%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대적인 원가절감을 통해 제조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흑자기반을 구축해 2년 연속 적자의

불명예를 털어버릴 계획이다.

올해 새로운 도약을 위해 광주공장이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노사관계다. 광주공장은 지난해까지 16년 연속 파업으로 차량 생산에서부터 내수·수출, 기업이윤 등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때문에 노사는 올해에도 노사갈등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생산손실은 물론 기업 이미지 악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않다고 보고 노사화합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공장은 2006년 31만3천대 생산대수와 매출 4조9천억원, 2007년 34만5천대와 5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산업활동 광주 '위축'·전남 '활기'

통계청, 12월중 동향 발표

지역 소비 활동도 좋아져

지난달 말 광주지역의 산업활동이 크게 위축됐으나 전남지역은 활기를 띤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광주전남지방 통계청이 발표한 '12월중 광주·전남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광주의 산업생산지수는 155.2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에 비해 4.8%(계절조정) 낮아진 것으로, 1년 전인 2006년 12월 보다는 4.8%나 감소했다.

반면 전남의 산업생산지수는 141.9로, 전월과 2006년 12월에 비해 각각 7.5%, 11.6% 증가했다. 이는 선방제조업과 석유정제품 등 주력산업의 생산증가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전남은 지난해 12월 건설발주액이 3천994억원에 그쳤다. 이는 전년 동월에 비해 72.5%(1조5111억원)나 감소한 것으로, 공공부문의 발주가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도 12월 발주액이 1천937억원으로, 1년 전보다 64.3%(3천494억원) 줄었다.

이와 관련, 광주·전남의 경우 전반적인 소비활동은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해 12월 광주·전남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각각 150.7, 503.6으로, 1년 전보다 각각 9.8%, 10.4% 증가했다. 반면 전국의 경우 생산 증가세가 계속된 가운데 소비활동의 개선은 더디게 진행되는 등 광주·전남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전국의 광공업 생산지수는 2006년 12월에 비해 12.4% 증가했다. 전년 동월대비 광공업생산지수 증가율은 추석 명절이 포함된 9월 0.4%에 그쳤으나 10월 18.3%, 11월 10.8%에 이어 12월 12.4%까지 3개월 연속 두 자릿수를 나타내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국산차 가격 인하 경쟁 불붙나

오피러스 300만원·마티즈 53만원 내려

기아차와 GM대우가 자동차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차종의 가격을 낮췄다.

기아차는 지난달 31일 수입차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고급대형차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오피러스 GH270 모델(LPI모델 제외)의 경우 기존 '고급형'과 '고급형 럭셔리'의 세부 모델을 '스페셜'과 '스페셜 럭셔리'로 변경하면서 가격을 300만원 안팎 낮췄다고 밝혔다.

오피러스 GH270 스페셜의 가격은 3천220만원으로 기존 고급형에 비해 275만원 싼 것이며, 스페셜 럭셔리의 가격은 3천520만원으로 기존 고급형

럭셔리해 비해 325만원 낮게 책정된 것이다.

오피러스 GH330 스페셜과 스페셜 럭셔리의 가격은 각각 3천640만원과 3천800만원이다.

GM대우도 이날 국내 경차시장에서의 마케팅 강화를 위해 경차 마티즈의 가격을 인하했다고 밝혔다.

가격인하폭은 마티즈 시티·조이·수퍼 등 3개 트림의 경우 53만원, 밴은 15만원 등이며, 수동변속기를 기준으로 한 차랑가격은 마티즈 시티 623만원, 조이 714만원, 수퍼 753만원 등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금호렌터카 베트남 시장 진출

호치민에 법인 설립... 2010년까지 영업차량 1천대

금호렌터카(대표 이삼섭)가 중국을 넘어 베트남에도 진출한다. <사진> 금호렌터카는 베트남 호치민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지난달 31일 영업을 시작한다. 호치민 법인은 자본금 500만 달러의 독립 법인이며, 베트남 진출은 국내 렌터카 업체로는 금호렌터카가 처음이다.

개업식에 참석한 이삼섭 사장은 "베트남은 높은 경제성장률과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갖춘 시장"이라며, "이미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항공, 건설 등 계열사들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현지 여건에 맞는 시스템과 차별화된 렌터카 상품개발을 통해 베트남 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렌터카 베트남 법인은 보

유차량 100대 규모로 시작해 일차로 베트남 내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영업기반을 구축하고, 앞으로 외국기업과 현지인에게 영업을 확대해 2010년까지 보유차량을 1천대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올 말에는 호치민에 이어 하노이에도 영업망을 개설해 베트남의 남쪽과 북쪽을 잇는 영업 네트워크를 구축, 베트남에서의 사업기반을 다질 방침이다.

금호렌터카는 지난 2005년 국내 렌터카 업체로는 최초로 중국 북경에 진출한 이후 청도·심양·대련·위해·심천 등 중국 시장을 개척해왔으며, 이번 베트남 진출을 계기로 일본 도요타를 제치고 아시아 1위 렌터카 회사에 오른다는 목표를 수립해놓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지역 기업 "올해는 좀 더 나아질 것"

광주상의 150개 제조업체 전망 조사 투자·수출·소비 호조에 약간의 기대

지역 기업들은 올해 경제상황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더 나을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이승기)가 최근 15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08년 지역경제 전망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올해 지역경제가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36.9%로 나타났다.

또 '더 나아질 것'이라는 업체는 33.9%, '지난해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업체는 29.2%였다.

올해 지역경제가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는 요인으로는 ▲ 투자호조(54.8%) ▲ 수출호조(19.4%) ▲ 소비호조(19.4%) 등을 꼽았다.

올해 가장 어려운 것으로 예상

되는 대내외 경제변수는 원자재 상승(51.9%)을 가장 많이 들었고 유가상승(27.9%), 금리상승(9.6%), 환율하락(4.8%) 순으로 나타났다.

신정부 출범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47.1%가 '별 영향 없을 것'으로 응답했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업체는 38.5%,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업체는 14.4%였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중소 '수출기업화 사업' 참여 업체 모집

광주·전남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센터장 박준근 청장)는 내수 또는 수출초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해외진출 기반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직전년도 직수출 실적이 100만불 이하인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관련 교육, 디자인 개발, 해외시장정보 제공과 홍보, 수출마케팅 등

을 위해 사업비의 90%를 1천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지역내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 총 55업체를 선정해 해외마케팅 분야에 6억6천여만원을 지원했다. 수출지원센터는 2월 1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업체 접수를 받아 현장평가와 진단을 거쳐 3월초 최종 지원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문의 광주·전남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김규오 (062)360-9192.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세일골

"지역민 주거문화·복지 향상 주력"

고재택 주공 광주·전남본부장



"지역 내 주거복지 향상에 주력함으로써 고향인 광주·전남의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신임 고재택(52)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지난달 31일 "13년간의 광주·전남본부 근무 경험을 살려 관내 주거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주택의 양적인 공급은 물론이고 주거환경과 문화·복지시설 확충 등에도 관심을 쏟겠다"고 밝혔다. 고 본부장은 또 "광주·전남은 타 지역에 비해 산업기반

과 주거환경 등이 취약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절실하다"며 "주거복지전문기업의 면모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 본부장은 광주 출신으로 조선대 토목과를 졸업한 뒤 1979년 주공에 입사, 광주전남본부 건설계획팀장 등 요직을 거쳤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신축활강개원 일식요리의 명가 청하

신축활강개원... 일식요리의 명가

대·소연회 / 상견례 / 각종 모임 및 접대
단체환영 / 주차장암비

223-7037 / 224-5002

IMPERIAL

50%+ 추가 30~20%

임페리얼 1주년

3월 1일 ~ 3월 31일